

북한에서 설탕은 신분 과시용

설탕 대신 사카린을 주로 사용했던 북한의 서민들이 설탕에 의존하기 시작하면서 설탕 수입량은 늘고 있다.

4월 '아시아경제'가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평양의 한 화교 보파리상은 "북한의 상인들이 중국에서 들여가는 물건 가운데 사탕가루(설탕)가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에 가깝다"며 "그동안 사카린을 주로 사용했던 북한 주민들이 이제 설탕에 의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북한에서 아직 사카린 소비가 설탕 소비보다 훨씬 더 많은 게 사실이지만 평양 같은 대도시의 경우 설탕 소비가 크게 늘고 있다"며 "사카린보다 설탕이 제대로 된 단맛을 내는데다 설탕을 소비해야 잘 사는 부류로 대접 받는다"고 전했다. 그래서 돈 좀 있는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설탕을 사들인다는 것이다.

그는 "여름에 많이 팔리는 빙과류도 사카린으로 단맛을 냈지만 이제 설탕으로 만든 빙과류가 인기"라고 전했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설탕 값이 사카린보다 몇 배나 비싸 일반 서민은 아직도 음식에 설탕 아닌 사카린을 넣는다"며 "특히 김치 담글 때 사카린 대신 설탕을 사



▲ 평양의 야외조식장에서 설탕물을 마시는 북한 주민들 모습.

용하는 것은 아직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식통은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경우 냉면 육수를 만들 때 사카린 대신 설탕에 의존하는 곳도 있다"며 "사카린보다 설탕을 넣은 냉면 국물이 더 인기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남한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 이 모 씨는 "비만·당뇨병에 걸릴 수 있다며 설탕 소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남한 사람들의 행동이 북한 주민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일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란, 핵합의 사실상 파기 "농축 우라늄 한도 초과"

이란이 핵합의의 의무조항이던 우라늄 보유 한도를 고의로 파기하며 고조되던 미·이란간 갈등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이날 '이란핵합의(JCPOA)'에서 규정한 저농축우라늄 보유 한도를 넘겼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란 보유 우라늄을 감시해온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이날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핵합의에 따르면 이란은 핵발전용 목적으로 3~4% 저농축 U-235 우라늄을 300kg까지 보유할 수 있다. 핵무기 제조에는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하다.

AFP통신에 따르면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 장관은 이날 ISNA 통신에 "합의에 따른 300kg(우라늄) 보유 한도를 초과했다"면서 "지난 5월부터 우리의 의

도를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란은 그동안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합의를 탈퇴해 자국에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이에 이란 정부는 지난 5월8일 미국의 핵합의 탈퇴 1주년을 맞아 저농축 우라늄과 중수의 보유 한도를 넘기겠다는 핵합의 일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불이행 선언 두달 만에 우라늄 보유 한도를 넘어서며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

이란 정부는 지난달 29일 빈에서 열린 JCPOA 회의에서는 유럽국을 향해 핵합의에 약속한 원유수입을 이행하라며 "기회를 발로 차지 말아라"고 사실상 최후 통첩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EU) 등은 이란의 조치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서 운전면허 따고 돌아가는 중국인 증가

지난해 한국에 단기 체류하면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자국으로 돌아가는 중국인들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YTN에 따르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전날 경찰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돌아간 중국인 단기 체류자가 4,675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단기 체류자는 관광 비자로 들어오거나 30일 비자 면제 조건으로 국내에 들어온 이들을 말한다.

2019년에도 5월까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례는 2,341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증가한 수치다. 앞서 2015년 단기 체류 중국인의 운전면허 취득 건수가 7,822건으로 역대 최고에 달했다.

그러나 이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 등이 줄어들면서 단기 체류 중국인의 운전면허 취득 건수도 줄어드는 추세였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관광 제한이 완화되면서 다시 이 수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따고 돌아가는 중국인이 늘어나는 이유는, 중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운전면허 취득이 쉽고 간단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단적으로 한국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의무 교육 시간은 총 13시간이며, 한 번 탈락해도 3일 이내에 재교육 없이 다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6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다시 시험을 응시하려면 열흘 더 기다려야 한다고 알려졌다. 이뿐 아니라 중국에서 한국 면허증을 갖고 있으면 각 지역에서 운전이 가능하고, 국제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매체는 이런 추세로 인해 일부 중국 여행사들이 운전 학원 수업과 여행이 포함된 관광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당,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